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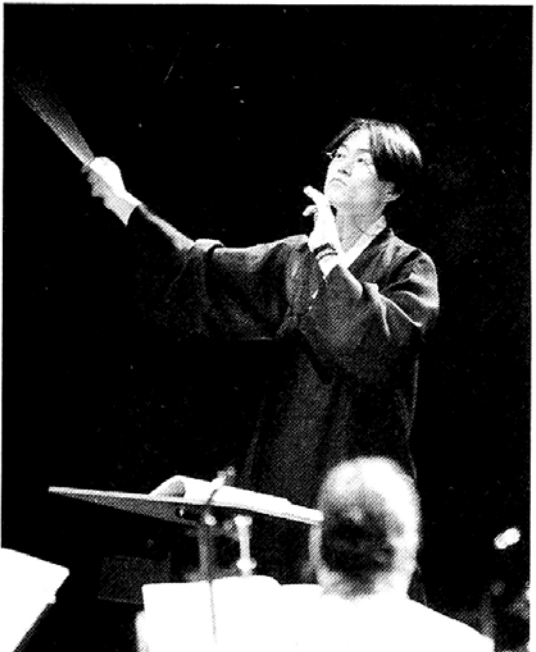
혜초와 만남...2천청중 '환희심'



◇음악회에는 고산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각종 각해 총인, 성초 통리원장, 태고종 인곡 총무원장, 광우 전국비구니회장, 총파 관음종 총무원장, 총지중 총지와 통리원장, 신낙군 문화관광부장관, 박철언 지민원 불지회장, 배중무 국회의원의 영등회 부회장, 황규신 한나라당 의원, 성낙승 불교방송 사장, 김광삼 현대불교 사장 등 종단 대표들과 정·관계 인사, 신형 단제장 등 사부대중 2천여명이 동참했다.



◇ '혜초' 음악회의 처음을 장식한 유승업씨의 오카리나 연주 선율 '혜초'. 마치 초원을 흐르는 청량한 바람처럼 그윽하고 신비로운 오카리나 선율이 저 먼 서역으로 인도하고 있다.



◇ 지휘를 맡은 작곡가 김희경씨는 이번 창작국악교성곡 '혜초'에서 국악과 서양음악의 조화를 시도하는 불교음악의 새로운 기법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창작 국악교성곡 '혜초' 대성황

"위대한 구도정신 음악 승화"

CD제작 - 지방 순회공연 예정

천삼백년전 불법을 찾아 머나먼 서역만리 구법여행을 떠난 혜초스님. 2월 27일 오후 7시 국립극장 대극장에 모인 사부대중 2천여명은 음악으로 혜초스님의 구법여행에 동참하는 환희심을 맛보았다.

진각 길상사 청통사 묘각사 인천 보명사 불광사 수원포교당 조계사 청년회 중앙불교 합창단과 서울대 성악과 합창단 등 연합합창단 3백여 명이 무대에 서고 중앙국악관현악단이 협연한 국악교성곡 '혜초'는 구성지에서도 흥겨운 전통 국악 선율을 기본으로 하면서 서양의 행진곡, 그레고리안 성가, 인도의 전통 선율, 남도창, 범패 등 다양한 기법이 선보였다. 국악과 서양음악을 넘나드는 불교음악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어 2년전 국악교성곡 '불발에 피는 꽃'으로 가능성을 인정받은 차세대 작곡가 김희경씨의 기량이 한껏 돋보인 무대였다. 장지현정씨가 쓴 유려하고 시적인 가사는 혜초스님의 구도여정을 잘 나타내 주었고 도신스님과 국악인 최진숙, 바리톤 유훈석씨의 독창과 남도창, 범패 그리고 내레이션 등이 합창과 어우러지면서 장엄한 음악으로 승화되었다.

'혜초' 음악회는 2부로 진행됐다. 1부는 대중음악가로 잘 알려진 유승업씨의 오카리나 연주. 유승업씨는 토속악기 오카리나로 자신이 작곡한 선율 '혜초' 중 '703년 연화장'과 '천축국을 향하여' 두곡을 연주했

다. 초원을 흐르는 바람과도 같은 그윽한 오카리나의 선율이 청중들의 가슴에 잔잔하게 파고들고 후 국악교성곡 '혜초'의 연주가 시작됐다.

혜초스님의 구법정신을 유려하고 섬세하게 묘사한 빼어난 가사에 구성지에서도 애절한 선율이 완벽하게 조화된 교성곡은 1시간 내내 청중들의 눈과 귀,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번 음악회에는 교계 문화행사 최초로 대통령 부인 이희호여사가 축하메시지를 보내 격려해 주었다. 이날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고산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한국불교음악사에 길이 남을 감동의 무대"라면서 "음악회를 준비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다"고 치하했다. 공연이 끝난후 기립박수를 선도한 신낙군 문화관광부장관 역시 "혜초스님의 선각자적인 도정정신을 새삼 느낄 수 있었던 음악회"라 말하고 "혜초스님을 문화인물로 지정하는데 대해 보람을 느끼며 스님의 업적이 우리 삶속에서 빛나기를 기원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가족과 같이 관람 온 최정수씨(강남구 대치동)는 "불교인이 문화인물로 지정된다면 이번 음악회처럼 구체적인 문화행사를 마련해 그 인물의 정신을 널리 알리려 한다"고 말했다.

'혜초'는 4~5월경 대구를 지방에서 순회공연이 계획되고 있으며 CD도 나올 예정이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밀교의 맥 계승한 혜초스님 정신선양"

혜초음악제 공동주최한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

"위대한 선지식 혜초스님을 국악교성곡으로 표현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참, 감상하고 스님의 정신을 선양하게 된것이 무척 기쁩니다. 끝없는 도정정신과 극기로 합당한 구도의 길을 마다하지 않은 혜초스님을 상하게 한다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용기도 얻고 불심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 흐뭇합니다."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은 밀교종단 진각종이 밀교교 혜초스님의 정신을 수준높은 음악제로 기리게 되고, 무엇보다도 일반인들은 물론 불자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혜초스님을 널리 알리게 된 점을 기뻐했다.

성초 통리원장은 진각종이 문화포교 교육 복지 불사를 지향하는 '문화종단'으로서 혜초음악회를 계기로 "대내적인 문화행사뿐 아니라 범종단적 예술행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불교문화를 창달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용성스님 유고詩 '온겨레의...' 3.1절 기념식장서 불러져 화제

"백두산이 아파되어 단군겨레 이루었고/ 한라산이 암파되어 단일기백 이루었네/.../만세만세 만만세는 단군겨레 만만세요/ 만세만세 만만세는 우리겨레 억만세라."



민족대표 33인중의 한분인 백용성스님(1864~1940)의 유고시에 "그리운 금강산"의 작곡가 최영섭씨가 곡을 붙인 '온겨레의 노래'가 1일 삼일절 기념식장에서 불러져 화제를 모았다.

용성스님이 '온겨레의 노래'를 지은 때는 30년대로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모든 시와 글들은 일제에 의해 압수당상으로 분류, 금지목록에 올랐고 해방후에는 남북분단의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속에서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91년 용성스님의 유고시집들을 보관하

고 있던 도문스님(대각사 주지)이 직접 최영섭씨를 찾아가 곡을 의뢰 95년 노래가 만들어졌으며 이번에 삼일절 기념곡으로 불러져 왜 용성스님의 업적을 한층 추모하게 되었다.

'온겨레의 노래'는 힘차고 역동적인 선율로 자주·독립정신을 잘 표현해 준다는 평을 얻고 있다. 직접 풍금을 연주하며 찬불가를 지어 포교하였다고 전해지는 용성스님은 우리나라 창작 찬불가의 시조로 알려져 있다.

행원문화상에 대중예술상 추가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은 2월 25일 이사회를 열고 올해 제8회 행원문화상부터 대중예술상을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역경상 △문학상 △예술상 등 매년 불교문화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업적을 이룬 사람을 선정 시상하는 행원문화상의 대중예술상은 방송 연에 활동을 통해 불교사상을 선양 홍보하고 대중문화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추천 마감 6월 30일. 문의 (02)926-4377(교향302)

통도사박물관 문화센터 수강생 모집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범하)은 전통문화와 박물관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제1기 박물관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의내용은 역사학 고고학 미술사학 민족학 불교미술 등 한국의 전통문화 전반에 관한 학습으로 선착순 145명을 모집한다. 또한 박물관 문화센터에서는 4월 26일부터 매주 1회씩 사지 한지공예 서각공예 불화그리기 등 4개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센터 3월 13일까지 선착순 마감. (0523)384-0020

'경주 남산' 세계문화유산으로

문화재관리국 추진

문화재관리국은 2월2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신청문화재 선정을 위한 문화재위원회(위원장 고병익)를 개최해 경주 남산과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추진하기로 했다.

신라인의 불국토 사상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는 경주 남산(사적 제311호)은 신라미술을 대표하는 불상과 불탑이 산재해 있는 노천박물관으로 산 전체가 신라의 역사와 문화, 신앙이 결집되어 있는 곳

이다. 고창·화순·강화고인돌은 세계 거석문화의 발생·분포 및 전과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써 밀집분포도, 다양한 형식의 공존 등 역사적 가치가 뛰어나다. 문화재관리국은 관련 시·도와 협조하여 세계유산 등록신청서, VTR자료 등 관련서류를 7월1일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등록 여부는 유네스코 전문가의 현지조사 등을 거쳐 2000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문화재소식

'유적유물 비공개 도면' 자료집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은 구한말 공백이전 유물 관련 자료들을 영구 보존하고 유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유리원관목록집Ⅱ>와 <공복이전조사 유적유물 비공개도면Ⅰ·Ⅱ> 등 자료집을 새로 발간했다.

<유리원관목록집Ⅱ>에는 중앙박물관 소장 흑백유리원관 중 소형 유리원관(1931~1944년 촬영본), 중형 유리원관(1924~1934년 촬영본), 대형 유리원관(1911년~1943년 촬영본) 7천8백여장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유리원관은 문화재 뿐만 아니라 풍속, 생활, 경제, 체질, 주거유형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다양한 모습과 상황을 담고 있다.

<공복이전조사 유적 유물 비공개도면Ⅰ·Ⅱ>에는 일제 시대에 작성된 미공개 유적·유물 도면 중, 경상남·북도의 도면자료 4백여장이 실렸다. 이 보고서는 1942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선불교고적조사자료>의 기초도면과 조선총독부 학부국 주관으로 시행되었던 각종 발굴·학술조사 관련 도면 등 보고서나 책자로 소개되지 않은 도면들을 모았다.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보고서

문화재관리국은 중요문화재 기록보존사업의 일환으로 96~97년에 지정된 국가지정(국보·보물) 동산문화재를 수록한 <동산문화재지정보고서(96~97 지정편)>와 88~96년까지 발견 신고된 매장문화재를 모은 <중요발견매장문화재도록(제Ⅲ집)> 등 보고서를 2종을 발간하였다.

<동산문화재지정보고서(96~97 지정편)>에는 부여 능산리차돌배기금동대장로(국보 제287호)를 비롯한 국보 14건과 조선시대의 의약서인·의방유취(보물 제1234호) 등 39건의 보물이 수록되어 있다. 각 지정문화재에 대한 해설과 관련된 사진자료를 담은 이 보고서는 전통문화재 연구 기초학술자료로 쓰거나 일반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중요발견매장문화재도록(제Ⅲ집)>에는 9년간 발견 신고된 매장문화재 중 3백4점의 중요유물을 시대별로 분류하여 유물의 특징과 성격에 대한 해설과 함께 사진도판이 실려 있다. 또 이 기간동안 발견 신고된 유물 총4천7백여 점에 대한 명칭, 수량, 시대, 발견자 등을 수록한 부록은 발견문화재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잡아함 1,362경에서 가려뽑은 금쪽같은 부처님 말씀 100가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경전을 읽는다. 2600년의 시공을 뛰어넘어 우리 앞에 홀연히 나타나는 부처님. 부처님은 마치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침을 베풀듯 이 마지막 목소리로 설법을 하신다. 가장 원형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

고 있는 잡아함 1,362경에서 특히 마음에 와닿는 100개의 경전을 골라 간단한 독후감을 덧붙인 이 책에는 시공을 초월한 부처님의 육성이 생생하게 녹음돼 있다.

종서성 지음 / 66 배판 변형 / 288쪽 / 값 18,000원

장소 주소: 서울 중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13층 4호 전화: (02)730-2500, 725-2800 팩스: 723-5961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성취하는 한국 불교 최고의 기도처 36곳

'한국불교 기도성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5대 적멸보궁을 비롯해 전국의 유명한 관음·지장·약사·문수·나한 기도 성지 등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성취하는 한국 불교 최고의 기도처 36곳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불교계 잡지·신문의 전문 기자가 필자로 참여, 발로 쓴 생생한 정보가 가득한 이 책에는 신비로운 기도 성취 영험담, 절의 역사, 문화재, 절을 찾아 가는 길 등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정성운 의 지음 / A5신 260쪽 / 값 7,000원

불교시대사 주소: 서울 중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13층 4호 전화: (02)730-2500, 725-2800 팩스: 723-5361

몸에는 생기를... 생활에는 윤품을... 아~보아

자연 그대로를 침실에 옮겨드립니다.

이젠 바꾸어요. 세상이 달라지니까...



황토의 원적외선은 혈액순환촉진, 피로회복, 숙면, 체온상승, 발한작용촉진, 음이온방출, 숙취해소, 파산화질분해등의 효과가 있고, 황토의 양이 많은 침대가 원적외선 방출량이 많은 침대입니다.

* 사찰을 통한 단체 구입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아~보아는 다릅니다. 품질이 다릅니다. 서비스와 가격만큼은 물론 효능은 더욱 뛰어납니다.



● 황토 흙침대의 명품으로 남겠습니다.

● 아나 살아있는 황토유품을 천연 그대로 사용합니다.

● 황토유품의 양이 국내 최고입니다.

● 셋 전자기장에 Zero화를 실현하였습니다.

● 넷 황토만의 내구력이 타사제품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 다섯 두꺼운 등판을 광폭으로 사용하며, 소파까지 직접 흙판두께 등판두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섯 최고의 원적외선 방출침대

● 일곱 삼성일부공용 제휴 할부판매(최장36개월)

● 여덟 타사제품까지도 완벽한 AS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아보아왕토침대

ABOA MUD BED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47-5 동화빌딩2층

고객상담실: (02)3431-0322